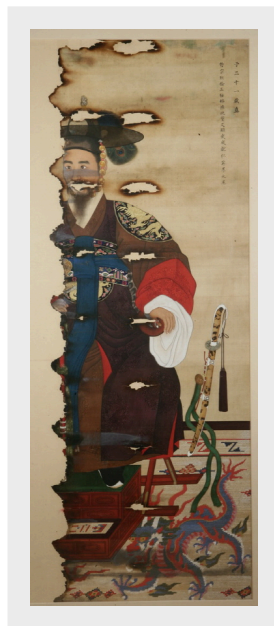


철종[哲宗]

세도정치의 꼭두각시가 된 강화도령

1831년(순조 31) ~ 1863년(철종 14)



1 철종의 즉위 과정

1849년 헌종[조선](憲宗)이 후사를 두지 못한 가운데 재위 15년 만에 승하하자 대왕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는 철종을 즉위시키고 수렴청정을 하였다. 철종은 사도세자의 증손인데, 그의 즉위는 당시 왕실이 겪고 있던 왕위계승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철종은 사도세자(思悼世子)와 양제 임씨 사이에서 태어난 은언군 이인(李愬)의 손자이다. 은언군과 전산 이씨 사이의 아들이 철종의 아버지 전계군 이광(李穰)이며, 이광은 부인 최씨와의 사이에서 회평군(懷平君) 이명과 영평군(永平君) 이옥을, 염씨와의 사이에서 철종을 낳았다.

순원왕후는 영조의 유일한 혈맥인 철종을 후사로 결정하여 자신과 순조의 아들로 삼고, 헌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관련사료](#) 철종은 왕자로서 군호가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19세였음에도 관례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창덕궁 희정당에서 덕완군(德完君)의 군호를 받고 관례를 치른 후 즉위할 수 있었다. [관련사료](#)

철종의 즉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철종의 선대가 죄인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철종은 숙부이면서도 조카 헌종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는 것이다.

첫째, 철종의 선대는 죄인으로 처벌을 받았다. 정조대에 철종의 조부 은언군은 그 아들 상계군 이담(李湛)이 정조대 홍국영(洪國榮)의 누이 원빈 홍씨의 양자로 들어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자, 강화도로 유배형에 처했다. 순조 원년인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부인 송씨와 상계군 이담의 처 신씨가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천주교도라는 것이 드러나자 함께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다. [관련사료](#)

은언군의 아들인 풍계군 이당과 전계군 이광은, 순조 12년 이진채·박종일(朴鍾一) 역모사건으로 추대의 대상이 되어 궁지에 몰렸으나 순조의 비호로 죽음을 면하였다. 1822년(순조 22) 이들에게 가시울타리를 철거하고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풍계군과 전계군은 후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계군의 장남 회평군(懷平君)은 1844년(헌종 10) 그를 추대하려는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사사(賜死) 당하였고, 이때 철종을 비롯한 가족들은 강화도(江華島) 교동으로 옮겨졌다.

둘째, 철종은 헌종의 대통을 이어 즉위했으나 항렬로는 헌종의 숙부였다는 것이다. 당시 헌종은 후사를 두지 못하였고, 아들 항렬의 인물은 물론 형제 항렬의 종실 인물도 찾기 어려웠다. 철종은 순조(純祖)와 순원왕후의 양자가 되어 즉위하였다. 당시 대상 인물로는 풍계군의 아들 익평군(益平君), 전계군의 아들 영평군(永平君)과 철종이 있었다. 그런데 익평군의 아버지 풍계군은 신유박해 때 죽음을 당한 은언군의 부인 송씨의 아들이었고, 영평군은 아버지가 전계군이기기는 하나 어머니의 신분이 매우 미천하여 철종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또 철종이 선택된 이유는 선왕의 유지가 없던 상황에서 왕실 최고의 어른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아들을 위해 수렴청정을 했던 순원왕후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20세가 넘어선 익평군이나 영평군은 수렴청정의 대상으로 적절치 못하였지만, 19세인 철종은 그보다 어렸기 때문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철종은 영조의 혈손이라고는 하나 순원왕후가 “만고풍상을 겪어 거의 촌동(村童)이나 다름없다.”고 하였듯이 강화도에서 일반 백성과 다름없이 살아왔다. 철종은 제왕수업은커녕 학문도 제대로 쌓지 못했다. 순원왕후는 “주상은 지난 날 어려움도 많았고 오랫동안 시골에 살아왔으나, 옛날의 제왕 중에도 민간에서 생장한 이가 있어 백성들의 괴로움을 빠짐없이 알아 애민(愛民)의 정사를 해왔으니 지금 주상도 백성들의 일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철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자질을 가졌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그만큼 철종의 즉위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관련사료](#)

2 안동 김문(安東 金門)의 위상 강화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철종의 즉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졌다. 순원왕후는 철종을 후사로 결정하고 은언군 내외의 작위를 회복시켜주었으며, [관련사료](#) 사친·지친들의 봉작을 서둘러 하교하였다. 철종의 아버지 이광은 철종 즉위 때까지 군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

므로, 과거 선조(宣祖)가 생부(生父)를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으로 봉작한 고사를 참고하여 전계대원군(田鵄大院君)이라는 군호를 정하고 추상(追上)하도록 명하였다. [관련사료](#)

1851년(철종 2)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마치자 철종이 친히 정무를 보면서, 철종은 효를 바탕으로 하여 순조와 순원왕후, 헌종과 익종(翼宗) (효명세자), 사도세자(思悼世子)와 영조(英祖)에 대한 존숭을 강화해 나간다. 1857년(철종 8) 순원왕후가 승하하자 철종은 지극히 슬퍼하며 친히 순원왕후의 애책·행록을 지었고, [관련사료](#) 발인할 때 대여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까지 하였다.

[관련사료](#) 신료들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철종은 시신을 묘소에 모시는 하현궁(下玄宮)에 친림하겠다는 뜻을 관철하여 결국 산릉에 나가 직접 참여하였다. [관련사료](#)

철종은 순원왕후가 강화도에서 어렵게 살고 있던 자신에게 왕업을 이어주고, 수렴청정을 하여 자신을 도와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아들로써 보살펴 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효를 다하려 하였는데 돌아가셨다면서 슬퍼하였다. 결국 철종은 자신을 왕으로 삼아준 순원왕후에 대한 보은을 효를 통해 다하려고 했던 것이다. [관련사료](#)

철종은 1853년(철종 4), 유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안동 김문의 세 유현 김창흡(金昌翕)·김원행(金元行)·김이안(金履安)을 석실서원(石室書院)에 제배하도록 하였고, 김창집(金昌集)도 추배하라는 유생들의 건의를 바로 시행하였다. 순원왕후 승하 후에는 김조순(金祖淳)을 석실서원에 추배하도록 하였다. 철종대에 정계에서 활동했던 김수근(金洙根)이 사망했을 때는 시호를 내리고 재상에 추증하도록 하였다.

1858년(철종 9)에 순조와 순원왕후에 대한 존호를 추상하자 신료들은 순조의 공덕 중 1811년(순조 11) 발생하였던 홍경래(洪景來) 난을 평정시킨 것을 강조하며 이때 참여했던 신하들의 공을 구별하여 공신으로 대우하자고 하였다. [관련사료](#) 이는 홍경래 난을 김조순이 주도하여 진압하였던 만큼 안동 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었다.

철종의 이 같은 조처는 순원왕후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넘어서 안동 김문을 대표로 하는 노론(老論)의 의리를 강화하는 것이자,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했던 안동 김문의 행보를 인정하고 비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3 안동 김문의 권력 확대와 반대 세력 탄압

철종대는 안동 김문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한편, 다른 세력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차단하였다.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을 시행하면서 안동 김문과 대립적이었던 조병현(趙秉鉉)과 권돈인(權敦仁)을 비롯해, 조병현의 그들과 친밀하다는 이유로 윤치영(尹致英), 이응식(李應植), 이능권(李能權), 신관호(申觀浩), 김건(金鍵) (金鍵) 등을 함께 공격받았다. 결국 순원왕후는 국상 중에 조병현을 사사하도록 하였고, [관련사료](#) 2년 후에는 권돈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인사에 압력을 행했다고 탄핵하였다. [관련사료](#) 결국 권돈인은 관직이 삭탈되어 도성 밖으로 쫓겨났다가 중도부처 되는 형벌을 받았다. 권돈인이 제거된 후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김정희(金正喜)도 형제들과 함께 유배당하였다. 안동 김문은 이어 치러진 철종의 국혼이 김문근(金汶根) 집안으로 결정되자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었다. 1860년(철종 11)에는 종친 경평군 이호(李皓)가 안동 김문을 무함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았다. [관련사료](#) 경평군 이호가 안동 김문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안동 김문 측에서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철종이 처분을 주저하자 김좌근(金左根)·김문근·김병국(金炳國)·김병익(金炳翊) 등은 도성 밖으로 나가 시위하였고, 결국 경평군은 신지도로 위리안치되었다. [관련사료](#)

이와 같이 안동 김문은 그들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철종도 이에 저항할 수 없었다.

4 민생의 피폐

철종은 1859년(철종 10) 서궐의 수리를 명하였다. 호조의 재정이 고갈되었지만, 서궐을 수리하는 것이 급하다며 수리비용에 대한 방책을 논의하도록 했고, 그 결과로 관동지역의 공삼(貢蔘)과 사도(四道)에서 내는 갑주가미(甲冑價米)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관련사료](#)

궁궐 수리와 선대에 대한 포상과 추증, 각종 왕실 전례와 행사의 증가는 철종이 국왕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국가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으로 파탄 난 백성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소위 삼정문란으로 인한 폐단은 해결되지 못하고, 관리들의 탐학이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재정은 더욱 궁핍해지고 철종 치세 말기가 되면서 전국적인 민란이 발생했다.

1862년(철종 13) 2월 진주농민봉기(晉州農民蜂起)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에서 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이른바 임술민란이었다. 조정에서는 민란 보고를 받고 안핵사를 파견하면서 삼정폐단의 대책을 마련하던 중 이하전 옥사가 발생했다. 다수의 무사들이 모여 이하전(李夏鎭)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혐의가 보고되었던 것이다. 임술민란의 폐단을 시정하고 민생을 구해야 할 상황에서 옥사는 확대되어 결국 이하전은 제주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사사 당하였다. [관련사료](#)

안동 김문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은 철종조의 여러 사안에서 위협을 될 만한 세력을 제거하면서 세도정치의 실질적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철종은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순원왕후와 안동 김문에 의해 즉위했기 때문에 스스로 왕권 강화를 추진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